

“인공태양~ 핵융합 산업화…에너지 거점 구축하자”

윤병태 나주시장, 핵융합연구원장 면담…실증로 유치 등 건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연계…연구단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안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시작으로 핵융합 연구부터 실증, 전력생산과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국가 핵융합 에너지 거점’을 나주에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5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나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핵융합 전력생산 로드맵에 맞춰 연구시설과 실증 인프라, 관련 연구 기관과 기업을 집적하는 국가 차원의 핵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안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해 오영국 원장과 면담하고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연계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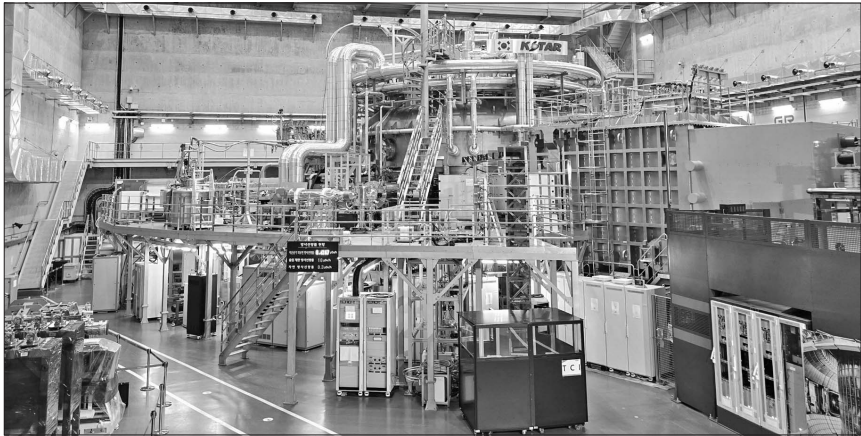
국형 핵융합 실증로(DEMO) 나주 유치와 정부 주도 핵융합 에너지 연구단지·클러스터 조성, 핵융합 에너지 특화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후속 정책을 나주에 집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정부가 2030년대 핵융합 전력생산을 목표로 실증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국가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의 전초기지로 확장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

표한 대한민국 미래 성장엔진 ‘7대 SEED 프로젝트’에 따르면 핵융합 실증로는 개념설계와 공학설계를 거쳐 2030년대 중반 부지 선정 및 건설에 착수하고 2030년대 말 전력생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같은 프로젝트가 발효되자 핵융합 혁신연합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핵융합정책센터를 통해 ‘7대 SEED 프로젝트’에 핵융합 실증을 포함하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 KSTAR(토카막 핵융합 실험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위치하고 있다. (도넛형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가둬 핵융합을 연구하는 장치)

발표하기도 했다.

나주시는 이러한 국가 로드맵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후속 실증 인프라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특히 나주시는 현재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 부지로 선정된 메다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에너

지 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연구시설과 전력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나주시는 향후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핵융합 실증로를 연계하면 연구-시험-실증 기능을 집적해 연구성과의 실증을 앞당기고 국가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핵융합은 미래의 무탄소 에너지원을 넘어 초전도, 플라스마, 소재·부품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집약된 미래산업이다”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하나의 연구시설로 끝내지 않고 연구에서 실증, 전력생산과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국가 핵융합 에너지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조원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함평 모악산 꽃무릇축제
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초가를 붉은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국내 최대 꽃무릇 군락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함평군 모악산에서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한 감성형 치유 축제가 개최된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제27회 함평 모악산 꽃무릇축제’가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해보면 용천사 꽃무릇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모악산 꽃무릇의 아름다운 경관과 숲이 지닌 치유의 가치를 결합해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끼고 일상의 피로를 덜어낼 수 있도록 감성형 치유 축제로 운영된다.

축제장은 붉게 물든 꽃무릇 군락지와 모악산 숲길을 활용해 아름답게 꾸며진다. 방문객이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걸으며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알차게 구성했다.

축제 기간에는 △꽃무릇 콘서트 △토코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비롯해 △꽃무릇 숲 나들이 △등산로 소원 리본 달기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또 모악산 치유센터에서는 축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나만의 꽃무릇 화분 만들기 △사인머스켓 비누 만들기 등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꽃무릇이 가장 아름다운 피어나는 시기에 맞춰 모악산의 자연을 온전히 느끼며 쉬어갈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모악산 꽃무릇 축제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특별한 가을날의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최일원 기자 6263739@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고흥군은 최근 흥양농협 미국처리장에서 2026년산 고흥 햅쌀 ‘바다품은 쌀’의 이마트·쿠팡 첫 출하를 기념하는 상차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고흥군청

고흥 햅쌀 ‘바다품은 쌀’, 전국 소비자 만난다

군, 10kg 1만포 첫 출하…유통채널 판로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고흥군은 최근 흥양농협 미국처리장에서 2026년산 고흥 햅쌀 ‘바다품은 쌀’의 이마트·쿠팡 첫 출하를 기념하는 상차식을 개최했다.

상차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와 조성문 흥양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농협 관계자와 농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해 고흥 햅쌀의 본격적인 출하를 축하했다.

이번에 출하되는 물량은 10kg들이 1만포, 총 100t 규모로 차량 10대에 나눠 실려 전국 이마트와 쿠팡 물류창고로 공급된다. 고흥에서 갓 수확한 햅쌀이 전국의 온오프라인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된다.

고흥은 남도의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등 벼 생육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전국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모내기와 수확이 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조생종 벼를 일찍 재배해 8월부터 햅쌀을 생산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한 발 앞서 신선한 햅쌀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올해 수확한 조생종 벼는 반맛이 좋고 수확 후 빠른 도정과 출하가 가능해 햅쌀 특유의 윤기와 찰진 식감, 신선한 풍미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과 흥양농협은 고흥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과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힘써왔다. 특히 이번 이마트·쿠팡 입점을 통해 전국 단위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하면서 고흥쌀의 소비 기반을 한층 넓힐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출하를 계기로 ‘전국에서 한 발 앞서 만나는 신선한 고흥 햅쌀’의 강점을 적극 알리고, 고흥쌀의 브랜드 가치 향

상과 판매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은 전국에서도 손꼽히게 이른 시기에 햅쌀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신선한 햅쌀을 소비자에게 빠르게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이 큰 경쟁력”이라며 “농업인들이 정성껏 생산한 고흥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마트와 쿠팡을 비롯한 대형 유통망을 적극 개척하고, 고흥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문 흥양농협 조합장은 “농업인이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만큼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흥군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고흥쌀이 전국 소비자에게 더욱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신안, 추석 맞아 ‘1004섬 상품권’ 할인

9월 한 달간 할인율 17% 상향…장바구니 부담 해소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신안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물가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한 달간 ‘1004섬신안 상품권’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17%로 상향해 판매한다.

신안군은 할인 폭을 확대해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할인은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해 명절 특수를 기대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안군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상품권 불법 환전, 허위 거래 등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맞는 이번 추석에는 군민들께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가족들과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1004섬신안 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여수, 해양수산 민생사업 확대 추진

섬박람회 기반 확충 등 예산 818억 편성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여수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실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도·시·지역 정부 여건 개선과 해양수산 분야 민생사업을 반영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해양수산국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751억원보다 67억원(8.9%)이 증액된 81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도서 교통망 확충과 해양환경 개선,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 확충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타 지역민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10억원), 1일 생활권 구

축 항로 지원(8억원), 아간 운행 운항결손액 지원(2억5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또한 해양환경 개선과 어업인 지원을 위해 어항 적치물·폐기물 처리비(1억2000만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6억원),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1억2000만원), 해양공원 노후 시설물 긴급보수비(2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해양수산국은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 확충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타 지역민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10억원), 1일 생활권 구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gwangnam.co.kr

메가박스 광주상무점 현재상영작

MEGABOX

www.megabox.co.kr ARS 1544-0070



새롭게 개편된
리클라이너 영화관!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

